

우리나라집에 관한 민속(完)

김 광 언

(인하대 부교수)

6. 유교문화의 영향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유교가 정치나 교육에 근본이 되었다. 대부분의 문물과 제도가 유교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성립되었고 상류 지배층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의 일상 생활도 유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대적 환경이 이러하였으므로 이 시대의 상류가옥에 유교적인 생활관이 철두철미하게 반영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유교의 중요한 덕목(德目)이라고 할 남녀유별(男女有別)이나 조상숭배의 관념이 조선조의 상류가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 보기로 하겠다.

남녀유별의 유훈(儒訓)은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하여 오누이 사이에도 어릴적부터 격리된 채 성장하도록 조장하였고 이러한 관념은 상류가옥의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한 집안에 있어서도 남자의 생활공간과 여자의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었던 것이다. 여성의 생활공간은 안채와 이를 둘러싸은 안행랑채로 제한 되었으며 남성은 사랑채에 기거하면서 필요한 때에만 은밀히 안채에 드나드는 준별거 생활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다. 안채에서 차려진 매끼의 식사는 아랫사람들이 운반해 내왔으며 의복 등속도 이와같이 하였다. 여성전용의 안변소와 남성의 바깥변소가 따로 세워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성이 일단 시집살이를 시작하면 안채의 중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것을

이상으로 삼았으며 사내 아이를 낳아 4~5년이 지난 뒤나 부모가 돌아가거나하여 친정에 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나들이였으므로 일생동안 중문 밖을 나서보는 것은 서너차례에 불과하였다. ⑩

⑩ 정음 김동수 씨(70세)의 모친은 17세에 결혼한 뒤 16년 만에야 근진을 갔으며 그 뒤로 다시 진정발걸음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그의 부인은 결혼 이후 40여년 동안 네번 진정에 다녀왔다.

남성도 안채에는 남들이 깊이 잠든 밤중에 한해서 은밀하게 잠깐씩 드나들었다. 새색시 시절에는 남편의 얼굴조차도 기억하기 어려웠으므로 나 이 차이가 심하지 않은 남편의 형제가 여럿인 경우 이들을 먼발치로 힐끗힐끗 볼 때마다 저들 중에 누가 과연 나의 남편인가 궁금하기도 했었다는 체험담을 내게 털어놓은 노부인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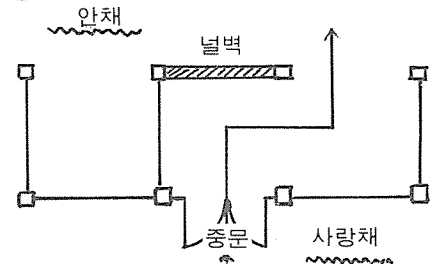
남녀의 생활이 이처럼 별개의 세계에서 각기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며느리가 될수록 빨리 사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당사자인 며느리에게나 시집쪽에나 현실적인 여건이었다. 밤이 되어 중문이 걸리면 안채와 사랑채가 완전히 차단되지만 젊은 주인이 부인 방으로 출입하기 위한 은밀한 통로를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떤 집에서는 며느리방쪽에서 열 수 있는 쪽문을 담 사이에 붙여두기도 하고 다른 집에서는 구석진 담에 사람이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만한 틈을 내고 이에 나뭇단 등을 쌓아두어서 외부 사람에게는 좀처럼 노출되지 않는다.

한편 어느 집에서나 사랑채 젊은주

인의 방과 안채의 며느리방은 최단거리에 위치하도록 배려하며 안채 대청의 문이 걸린 때라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며느리방 측면에 퇴를 달아두는 것이 보통이다.

또 외간(外間)남자는 주인의 허락없이(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누구라도 안채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기면 내정돌입(內庭突入)이라하여 엄중한 벌을 받았다. 심지어 경북 영천군 임고면의 정 씨 집에서는 그의 조부가 현재의 집을 매입할 때 주인이 안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사랑채의 모습만을 보고 대금을 치렀던바, 막상 이사를 하려고 하니 안채가 말할수 없이 험어 있어서 집값만큼을 다시 들이고 수리를 하였다고 한다.

외부 사람의 안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채에 드나드는 손님에게 안채의 내부가 엿보이는 곳을 막기 위해 그림처럼 중문 안쪽에 널벽을 쳐서 한 간을 돌아들도록 하였고 앞에 이야기한 월성의 손 씨집에서는 안채와 사랑채의 경계에 쪽벽을 쳐두었다. 이 벽은 시선을 차단하



기 위한 목적 외에 이곳이 사랑채와 안채와의 경계점임을 알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전북 옥구군의 채 씨 집에서는 중문쪽의 안마당에 사철 나무를 촘촘하게 심어서 밖에서는 안

채의 내부가 보이지 않고 안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이룩되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러한 점이야말로 이 지방 특유의 재치요 멋이라고 할 것이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설렁줄을 설치해 놓고 사랑에서 안채에 용건이 있을 때는 이것을 잡아 다녀서 안채에 알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어떤 집에서는 이것이 상스럽다하여 일일이 아랫사람이 의사를 받아서 전하였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나 손님 접대는 그의 격에 따라 하였지만, 영신 신씨네 집에서는 내객(來客)을 앞에 두고 주인이 하인에게 상을 어찌어찌차려 내어오라고 하기가 매우 면구스러워서 안부인과 미리 그림 암호를 정하여 두었으며 안주인은 사랑채에서 그려 보내는 그림의 내용에 따라 상을 차렸으므로 이 점에서는 안팎이 매우 간편하였다고 한다.

효(孝)는 유교사상의 최고지선(最高至善)의 도덕 개념이다. 효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자손은 부모가 생존했을 때 극진히 모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가 죽은 뒤에도 제사를 정성껏 올리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 생전의 봉양 보다는 사후의 제사 즉 조상에 대한 숭배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조로부터 후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중국에서는 실질적인 재산상속이 기본이 되고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가장권(家長權) 즉, 호주의 지위 계승이 중요시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조상에게 제사를 받드는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상속의 중요 내용이었으니^⑩ 조상숭배의 관념이 어느정도로 철두철미 하였던 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⑩ 최 재석, 한국가족연구, 1966, p. 646

이러한 조상숭배 관념은 조상의 위패를 모셔두는 사당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상류가옥에 사당을 세우

기 시작한 것은 고려말기인 14세기 중엽부터이며 조선조에서는 초기부터 이의 건립을 강력히 권장하였다. 당시의 귀족이 자기 집에 사당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도 하고 출가한 승려도 유교적 상례(喪禮)를 행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던 것^⑪이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었다.

이러한, 행정력의 강력한 발동과 상류층의 경쟁심리도 겹쳐져서 사당의 보급률은 급속도로 높아져왔다. 보기를 들면 경북 성주의 경산(京山)이 씨 마을은 모두 150여 호에 불과하나 이 중에 재실이 15채나 되므로 결국 15호마다 한 채 꼴의 비율인 셈이다.

⑪ 김 두현, 한국가족제도 연구, 1966, p. 583

집을 지을 때 사당의 위치를 먼저 정하는 것은 물론, 사당을 다른 건물보다 높이(또는 높은 자리에) 세웠으며 주위에는 담을 두르고 출입문을 달았다. 그리고 가옥의 좌향이 동남향인 경우 사당은 다른 건물의 뒷쪽인 동북방향에 두었으며 사당과 사랑채는 같은 방향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처럼 사당과 사랑채를 동일 방향에 두고 사당 출입문의 열쇠를 사랑채의 주인이 가지고 있던 점(곡간 등의 열쇠는 안주인이 간수한다) 등은 앞에서 말한 제사권이 사랑채 주인에게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사당채 중앙의 문으로는 종손만 출입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좌우의 옆문을 이용하도록 하여 제사권의 권위(?)를 한층 높였다.

한 간의 사당도 없지는 않으나 삼간으로 짓는 것이 보통이다. 내외부에는 단청을 입히고 신문(神門)이라고 하여 삼간 문전면에 반간의 퇴를 붙인 거대한 출입문을 따로 세우며 전면에 기화요초(琪花瑤草)을 심는 등 사당 치레도 대단히 하였다. 사당치레라는 말이 사당을 가꾼다는 뜻 외에 실질에는 힘쓰지 않고 외양만 번드르하게 꾸미는 일을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으니 그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든 경북 월성의 손 씨 집에는 6간의 제청(祭庁)을 사당 앞에 따로 세우기까지 하였으며 사당 앞의 화단을 포함시킨다면 전 대지의 반 가량을 사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위에 사당치레를 생각할 때 이 집의 안채나 사랑채 등의 거주공간은 오히려 사당의 부족건물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사당의 규모나 치레도 대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당 안에 조상이 살아있는듯이 대하여 집안의 비밀상적인 일은 모두 이에 나아가 고하였다. 주인은 불과 2~3일 간일지라도 여행을 떠나기전과 돌아온 뒤, 득남, 아이의 입학과 졸업, 혼사 등이 있을 때에는 빠짐없이 보고를 하였던 것이다.

사당에는 4대 선조의 위패를 모시며 대(代)가 지날 때에는 맨 윗대의 위패를 그의 무덤에 묻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불천위(不遷位)라하여 위패를 없애지 않고 자손 대대로 모시기도 한다. 시조나 입양조(入養祖)를 그렇게 하기도 하며 국가의 큰 공로를 끼친 인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를 지정하여(이를 국선, 國選이라고 한다) 그가 영영세세(永永世世)토록 제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불천위는 이외에 지방의 서원에서 이를 선정하기도 하였는데 국선과 이러한 서선(書選)의 영예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

형편상 사당을 지을 수 없는 집에서 사당벽장이라고 하여 대청 뒷벽의 상부를 터서 내어 벽장을 꾸미고 조상의 위패를 이 안에 모시었다. 이것도 어려울 때에는 나무 상자를 짜서 역시 대청 뒷벽에 걸어두기도 하는데 이를 벽감(壁龕)이라고 한다. 전북 정읍의 어떤 집에서 교살창을 붙인 벽감을 대청 전면의 퇴 끝에 달아둔 것을 본일이 있다.

한편 서민가옥에서는 조상당세기(영남), 몸오가리(호남)라고 하여 쌀이 담긴 작은 단지를 안방의 시렁 위에 모신다. 이 단지는 주로 장손집에

두며 위패처럼 조상의 수대로 (4 대를 봉사한다고 하면 8 개를) 모시거나 (호남) 한대를 단위로 하여 4 개를 두기도 한다(영남).¹³ 이러한 수의 관념은 앞에서 설명한 사당의 영향이고 원래는 단지 하나에 모든 조상의 혼이 머문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13 이 두현, 장 주로, 이 광규 공저, 한국민속학 개설, 1974, P.165

상류가옥에는 사당 외에 여막방(廬慕房)이라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기도 한다. (경북 경산의 최씨 집)¹⁴ 이 방은 육친이 사망했을 때 시신을 넣은 관을 서너 달 동안 모셔두기 위한 공간으로 조석상식(朝夕常食)을 공궤하며 부모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여막방이라는 이름은 부모의 무덤 옆에 임시 거처인 여막을 짓고 거상(居喪)을 마치는 3 년간 묘소를 보살피던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이 따로 없으면 사랑채나 행랑채의 구석방을 치우고 대용하나 그마저 예의치 않을 때에는 관을 안채의 대청이나(전북 옥구의 채 씨 집) 사랑채 누마루 아래(경주 최 씨 집) 또는 사랑채 처마밑(전북 임실 이 씨 집)에 두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죽고 나서 며칠 뒤에 장례를 치르면 마치 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시신이나 서너 달(보통은 석달) 집안에 모시고 슬퍼하기 위한, 효도의 한 표현으로 이를 "가빈(家殯)을 꾸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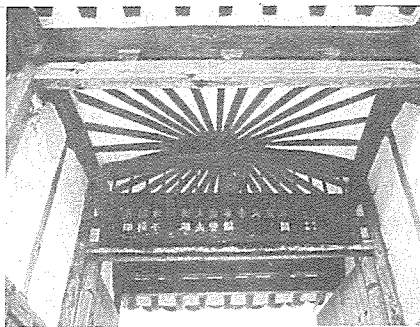
14 내 글, 경북지방의 고가옥, 문화인류학 3집, 1970

가빈을 꾸렸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의 제거와 시신에서 흐르는 장수(葬水)의 처리이다. 전남 영광의 조 씨 집에서는 수수 알갱이를 태워서 20여cm 쌓고 마목(馬木)을 놓은 다음 이 위에 관을 두고(이렇게 하면 탄화된 수수가 악취와 장수를 흡수한다) 방문이나 창을 종이로 발라서 밀폐 시켰다. 그러나 전북 장수의 전씨 집이나 김해 등지에서는 방의 구들을

뜯어내고 모래를 깔 위에 관을 두었으며 관 안팎에는 조를 두텁게 칠하고 장판지로 싸서 장수가 흐르는 것을 막았다. 또 전북 옥구의 채 씨 집에서는 밤낮으로 축을 피워서 악취를 덜었으며 경북 안동에서는 여막방의 천정에까지 모래를 깔쳐 두었다.¹⁵

이 가빈의 풍속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 것으로 수서(隨書) 고려전(高句麗傳)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빈을 꾸미며 삼년이 지난 뒤에 좋은 날을 받아 장례를 치른다"(死者殯於屋內經三年擇日而葬)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장법은 고구려 뿐만 아니라 백제에서도 행하여 졌음을 우리는 1971년 7월에 발굴된 무영왕릉(武寧王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능에서 출토된 지석(誌石)에는 무영왕이 523년 5월 7일에 사망하였음에도 그가 매장된 것은 그로부터 28개월이 지난 528년 8월 12일이었으며 526년 11월에 사망한 왕비 또한 529년 2월 12일에 매장되었다고 새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왕이나 왕비는 사망하고 매장되기까지 약 3년동안 빈전(殯殿)에 모셔져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가빈법이 신라에서도 행하여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앞의 최씨 집의 여막방은 바로 이 유습의 계승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15 내 글, 전북지방의 장속(葬俗), 전북의 문화Ⅲ, 1978



18 전북 임실의 정문

이 가빈과 유사한 것에 초분(草墳)이라는 장법이 있다. 이것은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도서지방에서는 해변가에) 이영을 덮은 관을 삼년간 두었다가 살이 썩은 다음 뼈를 추려서 다

시 장례를 치루는 풍속으로 지금도 도서지방에서 행하여진다. 가빈법이 초분장으로 변하였는지 또는 그 반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별개의 문화적 양상인지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예전에는 충신이나 효자 그리고 열녀(烈女)가 난 경우 이를 기리기 위해 임금이 붉게 칠한 판액(板額)에 충, 효, 열과 직함, 성명을 새긴 것



19 전남 영광 김씨집 대문위에 세운 정문

을 내렸다(이를 정려, 旌閭 한다고 부른다). 이것을 받은 집에서는 집문 앞이나 마을 입구에 문을 따로 세우고 이것을 달아두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대문의 위에 걸기도 하였다. 또 자손이 번창해지면 정각(旌閣)을 따로 짓고 그안에 앞의 현판을 걸거나 내용을 새긴 비석을 세워 두었다. 그런데 앞의 영광 김 씨 집에서는 삼간의 대문을 세울 때 중앙 네 귀의 기둥을 높이 올리고 정각을 꾸몄다.¹⁶ 대문채 위에 정각을 세운 이러한 예는 아마도 이 집 하나 뿐일 것이다.

16 내글, 전남지방의 가옥 ① 영광지역, 호남문화연구 10집 1979

정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과거(小料)에 급제한 이가 나왔을 때 이를 자축하고 널리 알리는 뜻에서 마을이나 집앞에 표적을 세워 두는 일도 있었다. 앞의 정읍 김 씨 집에서는 대로 만든, 차양이 너른 큰 우산 모양의 소죽(어원 불명)을 세워 두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을에서는 김 씨 집 앞을 소죽거리라고 불렀다고 한다.¹⁷ 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 껌질을

하얗게 벗긴 소나무를 마을 입구에 세워둔 것을 1977년에 전북 임실군 둔남면 둔기리에서 본 일이 있으며 영광의 김 씨 집에서는 이와 같은 소나무 위에 나무로 짠 새를 엮어두었다고 한다. 이로써 생각하면 앞의 입실의 것에도 원래 새가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⑩ 전북 임실군 둔남면 마을입구에 세운 솔대

임실과 영광에서는 이를 솔대라고 부르는데 이 회승의 국어사전에는 솟대의 항 ①의 설명에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위하여 그 마을 입구에 높이 세우던 붉은 장대. 그 끝에는 푸른 칠을 한 나무로 만든 용을 달았음”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⑪ 내책, 정음 김씨집.

열화당 미술문고 58, 1980

호남과 영남의 상류가옥

호남과 영남 두 지역의 문화에는 여러가지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상류가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두 지역 상류가옥의 평면을 비교해 보자.

나는 지금까지 전북지방의 상류가옥을 13호 조사하였는데 주건물(안채나 사랑채)의 평면이 일자형(一字型)으로 구성된 집이 7호, ㄱ자형으로 된 집이 4호, 그리고 나머지 두 집은 ㄱ자형 집이었다. 그리고 전남의 경우에는 17호 중에 일자형집이 15호이고 나머지는 ㄱ자형이었다.

이를 더하면 결국 호남의 상류가옥은 일자형 가옥이 73.33%를 차지하며 ㄱ자형이 20%를 그리고 ㄱ자형은 극소수에 지나지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영남지방의 상류가옥은 대부분 ㄱ자형 평면을 기본으로하고 있다(이 지방에서는 예전의 곡식을 되던 말이 모말이었으므로 ㄱ자형 집을 말집이라고 하는데 나는 영남의 상류가옥중에 ㄱ자형이 아닌, 일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가옥의 예를단지경남 영산의 신 씨 집에서 보았을 뿐이다). 말집의 경우 ㄱ자 부분이 안채이며 ㄱ자의 마지막 획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랑채를 이룬다. 건물의 배치면에서 볼 때 일자형 건물을 위주하는 호남식은 분산형이고 영남의 ㄱ자형은 집약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분산형은 집약형에 비해 너른 대지를 필요로 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ㄱ자형은 응색한 대지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평면형이다.

영남지역 상류가옥의 평면이 ㄱ자형을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택지를 너른 평지보다 이에서 떨어진 계곡이나 능선에, 마을 입구보다는 후미진 안쪽에서 찾는경향이 강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아마도 은둔적인 생활을 이상으로 삼는 유교의 선비사상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지방의 상류가옥 중에 물이 나지않는 집이 더러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집에서는 아침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직 물을 길어대는 일이 유일한 임무인 물담사리가 한 두 사람 따로 있게 마련이었다.

비탈진 언덕에 집을 짓는 경우, 자연지형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안채, 사랑채, 행랑채는 보통 삼층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안마당과 안채의 대청 사이는 2m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예사이며 이 때문에 주인이 마루 끝에 서서 하인을 부릴 때에는 주인의 발끝이 하인의 머리 위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상류가옥

은 평민이 사는 마을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건물의 평면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지니는 분위기도 두 지역이 서로 다르다. 영남에서는 건물의 치레보다는 실질을 위주로 하는 경향이 강해서 투박하면서도 강건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호남의 가옥은 건물자체도 조화를 이루고 있거니와 그 화사한 치레 또한 한 눈에 들어난다.

보기를 들면 앞의 손동만 씨 집안채 대청 전면에 세워진 두 개의 기둥의 길이는 같지않다. 그것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주추에, 기둥의 길이를 맞추어서 하나는 길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짧아진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둥은 주추를 위해 세워진 결과가 된 셈이다. 아마도 이러한 예를 호남의 상류가옥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호남에서는 가옥 자체 뿐만 아니라 주위의 풍광(風光)을 가꾸는 데에도 정성을 다 하였다. 마당은 물론 담 안팎에도 화초와 나무를 심었으며 담장에 쌓은 돌이나 굴뚝의 모양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서 조화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하였다.

나는 집을 안에 또 하나의 자연을 가꾸거나 자연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가장 뚜렷하게 들어난 보기를, 조선조 말기에 판소리 연구와 이에 대한 후진 양성에 일생을 바친 동리(桐里) 신재효(1812-1884) 선생이 기거하던 집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분은 고창읍의 한쪽으로 흐르는 시내물에 도랑을 내어 그 한 줄기가 집안으로 들어와 대청 밑으로 흘러서 다시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던 것이다. 내가 갔던 1967년에 이미 물길은 막히고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안내자의 이야기를 듣고 동리 선생은 과연 신선이었구나 하는 찬탄을 금할수 없었다. 정음의 김 동수 씨 집에서도 가느다란 물길을 멀리서 끌어와 사랑채 전면의 돌담을 따라 흐르도록 하였는바, 이 물에 손을 적시거나 하였다 고 한다.

생활관습에도 영남과 호남지방은

대조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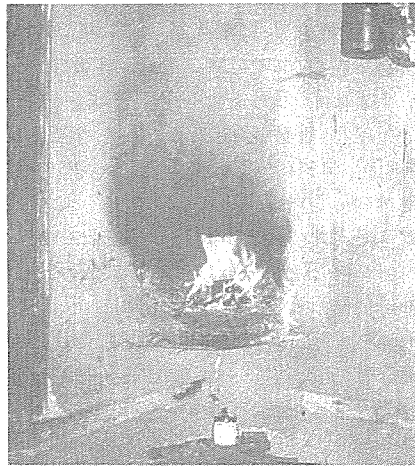
영남의 상류가정에서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집안 살림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보통 5~10년 사이) 시어머니는 살림권(主婦權)을 그네에게 내어주는 동시에 방까지도 서로 바꾸는 일이 있다. 따라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큰방으로 옮겨가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쓰던 머리방으로 물러난다. 만약 3대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맨 윗대의 나이 많은 이는 하인이 쓰는 여행랑방으로 물러나온다. “머리방이 큰방 놓 들어낸다”는 이 지방의 속담은 이러한 생활관습의 표현인 것이다. 반드시 안채에서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채에서도 젊은 주인과 노인은 방을 서로 바꾸며 가장권(家長權)도 이에 따라 옮겨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남에서는 부모가 자기 생전에 주부권이나 가장권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으며 방을 바꾸지도 않는다. 오히려 호남의 어떤 곳에서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방을 비워두었다가 대상이 끝난 뒤에야 며느리가 큰방을 쓰기 시작한다. 죽은 뒤 3년간은 죽은 이의 혼이 그 방에 머물러 있다고 믿는 때문이다.

두 지역 사이의 이러한 생활관습상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영남의 관습은 나이 많은 이가 재산이나 가장권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별채나 안채의 구석방으로 물러나는 일본의 은거제도(隱居制度)와 유관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또 제주도의 경우 나이 많은 노부부가 안채를 젊은 아들에게 내어주고 바깥채에 따로 나와 식사는 물론 모든 경제생활을 아들네와는 별도로 행하는 관습도 이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은거제도가 서부일본,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시고주(四國)나 규슈(九州)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사실도 주목할만 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부권을 이양할 때에는 치마 허리끈에 차고 지내던 곡간이나 도장등의 열쇠 꾸러미를 건네주는 것으로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삼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밥주걱으로 대신한다. 열쇠 꾸러미보다는 밥주걱쪽에 현실성이 더 있다고 하겠다.



① 불을 붙인 고콜

시어머니의 방과 며느리방의 규모나 치장에도 두 지역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호남의 상류가옥에서는 두 방 사이에 이렇다할 격차가 없는 것이 보통이나 영남의 일부 가옥에서는 큰방의 규모가 2칸 내지 3칸임에 비해 머리방은 단 1칸 규모이며 천정은 서까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나는 연등천정이고 바닥에는 장판을 깔지않고 흙바닥에 자리를 깔아두기도 한다. 따라서 며느리방의 규모, 내부의 치장 등은 하인방의 그것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영호남을 막론하고 상류가옥 주위에는 서너 칸의 초가를 여러채 세우

고 결혼한 노비 들을 거주시켰다. 안 사람은 주인집의 안채에 들어가서, 그리고 바깥사람은 논 밭의 일을 하였으며 세끼는 모두 주인집에서 먹었다. 상류가옥 주위에 이러한 집을 짓는 것은 노비 들을 불러쓰기 편리한 이점 외에 주인집의 외곽을 보호하고 비상시에는 일시적인 피신처로 삼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정읍 김 씨 집 주위에는 모두 여섯채를 세웠으며 사당 뒷쪽에 비밀 탈출구를 만들고 이에 가까운 집에는 노비 들 중 충성심이 가장 강한 이를 거주시켰다.

이러한 집을 호남에서는 호지집, 영남에서는 가람집이라고 하며 이 집에 사는 사람을 가람사람 또는 가람 것이라고 낮추어 불렀다. 한편 평안도에서는 이러한 집을 마가리집이라고 하였는바 호지, 가람, 마가리에 대한 어원은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상류가옥에 목욕탕 시설이 없었던 것은 매우 기이하다고까지 할만하다. 영광의 김 씨 집에는 목욕간이 따로 있었으나 그것은 남자 들이 여름에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목욕간이 없었으므로 여자 들은 여름이면 안채 뒷쪽에 큰 독을 옮겨 놓고 물을 부은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으며 거울에는 부엌안의 큰술이나 큰 항아리에 더운 물을 붓고 역시 그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였다. 목욕은 언제나 깊은 밤중에 그것도 파수꾼을 세워놓고 하였으며(이 사람이 더운 물을 계속 떠붓기도 한다). 여름을 제외하면 한가위와 설달 그믐 그리고 2월이나 3월 경에 각각 한 번씩 하는 정도였다. 그나마 남자 들은 여름에 냇가에서 몸을 씻었을 뿐이고 이 외에는 제사 무렵에야 물에 적신 수건으로 여기 저기를 닦아내는 것이 고작이었다.(*)